

## 협회행사 보고 ① ; 제37회 도서관주간

2001년 4월 12일(목)부터 4월 18일(수)까지 제37회 도서관주간이 실시되었다. 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이용자와 함께 지식정보사회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새 봄이 열리는 4월에 가지고 있는 도서관주간은 전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매년 그 행사의 양과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37회 도서관주간은 대학과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의 참여도 늘어났다.

이번 도서관주간의 주제는 '도서관에 가면 먼 곳이 보인다'로 정했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도서관이야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등대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망루라는 점을 표현하였다. 포스터에 사용된 그림은 민음사에서 발행한 『책그림책』이라는 책에 실린 크빈트 부흐홀츠(Quint Buchholz)의 그림으로 민음사 해외저작권팀의 도움으로 작가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아 포스터로 제작하였다. 도서관주간 표어로는 '도서관, 지식정보시대 나의 경쟁력'과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빌 게이츠)'로 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 도서관은 오히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자 실제적으로 부와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는 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한편으로 우리 도서관들이 그러한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시대의 부와 문화를 창출하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각성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도도 함께 포함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번 도서관주간 기간 동안 각종의 도서관 홍보, 독후감 모집과 시상, 추

천도서목록제작 배포, 개방시간 연장이나 대출권수 확대, 도서관 직원들과 이용자들간의 간담회 개최와 우수 이용자 시상, 각종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펼쳤다. 몇 가지 눈에 띄는 행사는 우선 몇몇 도서관에서 지난 3월 초 KBS가 창사특집으로 방영한 바 있는 'TV, 책을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상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통신, TV 등으로 점차 책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 시대를 점검하고 책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가치, 그리고 독서진흥을 위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활동과 지원책, 특히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진흥의 모습을 설득력있게 보여준 것으로 방영 당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보존기한이 지난 잡지를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사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행사는 도서관 장서의 최신성 유지와 보관장소의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이 이용자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으로는 훼손도서전시회를 개최한 도서관도 있는데 이는 도서관 장서의 훼손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도서관 운영자는 물론 실제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각성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학교 발전을 위한 실무적인 세미나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되었다. 이는 학교도서관이나 문화행사가 부족한 우리의 지역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도서관이 이러한 부족한 부문의 활성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

다. 전자우편을 통한 5분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도서관도 있어 도서관 서비스나 홍보방법이 다양해지고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서관 직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등반대회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서관이 자기 도서관을 넘어 이웃 도서관은 물론 전국적, 전세계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지금 시대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서관 직원들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도서관 개관일 연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 참여도서관와 각종 통계는 2001년 4월 12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참여도서관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22	16	6	4	4	7	4	16	19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학 등	계
16	15	4	13	20	13	3	9	191

〈구분별/지역별 도서관주간 특별행사수〉

지역\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
서울	4	2	7	12	21	7	20	16	22	23	1	1	11	29	176
부산	7	11		15	10	14	40	8	19	10	3		4	35	176
대구	5			3		5	11	5	3	6		3	5	17	63
인천	3			2	2	4	2	4	1	4			1	7	30
광주	2			3	3	2	2	4	4	3	1		1	8	33
대전	1	1		3	3	3	20	5	6	5			5	11	63
울산			1	1	1	6	3	1	7	1				9	30
경기	1		2	10	6	5	17	5	10	9	1	1	3	23	93
강원	8		1	7	4	11	17	2	18	4		1	4	40	117
충북	6	6		4	5	6	13	6	17	5	2		2	37	109
충남	5	1	2	5	4	10	10	5	5	6				25	78
전북		1		1		1	4	1		2				6	16
전남	3	3		3	2	9	15	6	5	4	1	1	2	21	75
경북	8	3	3	2	1	16	6	9	8	7			1	58	122
경남	6	2	2	8	8	11	13	6	13	4	1	1	11	32	118
제주	3	1		1		1	2		3	2	1		2	2	18
기타	3		1		1	5		1					1	18	30
계	65	31	19	80	71	116	195	84	141	95	11	8	53	378	1,347

① 이용자와의 간담회 ② 개관시간 연장 및 대출권수/기간 확대 ③ 도서교환전 ④ 각종 독서지도 행사 ⑤ 독서회의 독서토론회 ⑥ 권장/추천도서목록제작, 배부 ⑦ 각종 문화행사, 강연회 등 ⑧ 모범이용자 또는 다독자 표창 행사 ⑨ 어린이행사 ⑩ 영화 및 음악감상회 ⑪ 이동도서관 운영 ⑫ 이용자의 요구 설문조사를 통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모색 ⑬ 문화교실 작품전시회, 사진전시회, 오·훼손도서전시회 등 전시회 ⑭ 기타 각종 홍보활동, 운영위원회 개최 등

## 협회행사 보고 ② ; 도서관문화학교

우리 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도서관문화학교” 2001년도 제1기 강좌가 4월 17일(목) 개강하였다.

도서관문화학교는 가정교육의 중심인물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독서의 필요성과 독서방법을 지도함으로써 건전한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여러 장르의 문화교양강좌를 병행 개최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1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해 왔으며, 2001년부터는 우리 협회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 주관하게 되었다.(관련기사 본지 1·2월호 59쪽 소식 참조)

이번 도서관문화학교는 4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자녀독서지도와 문화교양강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독서지도와 작가와의 만남, 가정교육과 문화교양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총 18강좌로 구성된 이번 문화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책 고르기와 올바른 독서방법 지도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강좌로 『이야기로 풀어가는 독서지도』(송영숙,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책』(황금숙,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아이들의 발달심리에 따른 독서교육』(최진, 한서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인터넷을 활용한 독서교육』(오진원, 아동도서 전문사이트 운영자),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교육』(박인영, 창의성개발연구소 연구실장),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지도』(한운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영어 동화책 이렇게 읽어주자』(김재경, 서초 Pre School Academy 영어강사), 『어린이들의 독서

능력 개발을 위한 환경 관리』(이진아, 환경컬럼니스트) 등 8개 강좌를 준비하였다.

둘째, 아이들의 눈높이로 아이들이 접하는 동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김은하),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판타지 동화세계”(이재복)의 작가들과 만날 수 있는 3개 강좌를 마련하였다.

셋째, 도시화에 따른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와 핵가족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겪고 있는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아이에게 전해주는 엄마 리더쉽 원칙』(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공학부 교수),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방법』(이민정, 한국리더쉽센터 퍼실리테이터), 『어린이와 영상매체』(정근원, 미래영상연구소장) 등 3개 강좌를 개설하였다.



〈문화학교 강의 장면〉

넷째, 자녀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켜 훌륭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강좌로 『김성녀와 함께하는 국악여행』(김성녀, 중앙대학교 창작음악학과 교수), 『금난세의 클래식 산책』(금난새,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백창우와 함께 동요 부르기』(백창우, 시인 및 작곡자), 『한국 종이문화의 전

통계승과 창조』(이지영, 한국중이접기협회 교육 기획실장) 등 4개 강좌를 마련했다.

4월 24일(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번 “도서관 문화학교” 강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송영숙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교수는 ‘문자교육이 독서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옛날 이야기 한 꼭지를 듣는 것은 한편의 동화를 읽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으로 독서교육에 있어서 이야기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의 저자이며 현재 서울어린이도서관 가정독서지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하 씨는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는 정보처리 능력, 즉 독해력을 꼽을 수 있다. 독해력의 3가지 요소는 문맥에 대한 이해, 배경 지식, 자발성이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즉 자발성이다. 그러므로 독서교육의 출발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며 토론, 글짓기, 논술은 그 다음에나 가능한 작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아동도서 전문사이트 운영자인 오진원씨는 컴퓨터, 특히 인터넷이 아이들을 책과 더 멀어지게 하는 주범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나 컴퓨터를 비롯한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일수록 무작정 책을 읽으라고 하기보다는 멀티동화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인터넷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한윤옥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건이자 우리나라 현행 교육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배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독서이다. 그러나 독서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훈련에 의해서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학교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독서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밖에 최근 ‘나쁜 어린이표’,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의 책으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황선미 동화작가를 초대하여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 동화책 활용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이번 제1기 강좌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제2기 강좌는 9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글 : 박경아 한국도서관협회 팀장)

## 공 지 사 항

이번 제52차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우리협회 평생회원 회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회비는 특별회계로 적립되어 협회 발전을 위한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